

에이덴(営電[株]) 방송산업을 지탱하는 음지의 주역

(1) 기업개요

| | |
|------|---|
| 소재지 | 神奈川県川崎市麻生区栗木二丁目7番1号 |
| 설립연도 | 1964년 |
| 분야 | 시험용 TV 신호발생기 제조 판매 |
| 자본금 | 3억 7640만 엔 |
| URL | http://www.eiden-gp.co.jp |

(2) 생산제품

시험용 TV 신호발생기는 일반적으로 방송국이 발신하고 있는 전파신호와 동일하게 발신한 신호를 TV가 정확하게 수신하여 영상이 나오는지를 시험하는 장치이다. 일본 전파법에서는 방송국의 실험현장과 TV 제조공장의 생산라인에서는 방송용 전파를 송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국과 TV 제조업체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 바로 시험용 TV 신호발생기이다.

에이덴(営電)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우선 먼저 “항상 최첨단기술을 개발하여 틈새시장에서 커다란 비즈니스를 창조한다.” 는 기본이념과 함께 기술자집단이면서 개발형기업임을 강조하는 문구들이 눈에 들어온다. 물론 단순하게 이렇듯 이념적 비전만 제시하고 있는 것만은 아닌 듯싶다. 실제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신호발생기는 일본시장에서 90% 이상의 장악력을 자랑하는 거의 독점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장악력은 일본 국내시장만이 아니다. 해외시장에서도 약7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에이덴이 생산하는 TV 신호발생기는 NHK, 민영방송국 등의 방송기관과 더불어 소니, 마츠시타, 샤프, 도시바, 히타치, 미츠비시, NEC, 후지쯔, 파이오니아, JVC 등과 같은 일본의 대형 전자업체 대부분에 납품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 협약을 맺은 에이전시 현지기업을 통해 일본국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세계시장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세계 30여 나라의 TV공장에서 에이덴의 제품이 활약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미개척지역 이었던 중남미 시장 공략을 위해 최근 에이덴의 기술자들이 빈번하게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있다.

(3) 성장과정과 Only-One 기술

통신기업체 출신의 현재 사장 후카가와(深川) 씨가 동료 몇 명과 함께 에이덴을 설립한 것은 1964년이였다. 아시아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도쿄올림픽을 전후로 TV업계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었다. 따라서 신호발생기의 수요도 급팽창했으나 당시에는 진공관 방식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감지한 에이덴은 서둘러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제품개발에 착수했고, 머지않아 대폭적인 소형화와 저가격화를 실현시킨 신호발생기의 상품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제품의 개발성공으로 하루아침에 업계 최고 수준의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기술력으로 무장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방송의 디지털화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현재 디지털방송 규격은 BS(위성방송), CS(위성통신), 지상파 등 3파(波)로 미국, 유럽, 일본에 총 7종류가 존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다양한 방식 모두에 완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에이덴뿐이다. 일본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은 2003년 말에 3대 도시권에서 시작하여 2006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방송의 확산 시기에 맞추어 지상파 디지털방송용 신호발신기를 개발하여 상품화했으며, 매출이 그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사실 디지털방송은 고화질 영상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소비자들의 관련제품 구매로 이어지고 있으나,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혼신(混信)의 문제였다. 따라서 에이덴은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면서 점차 불거지고 있는 기존의 아날로그방송과의 혼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상파 디지털·아날로그 혼신 신호발생기”를 서둘러 개발하여 시장에 선보였다. 시장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그간 축적해 온 주파수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틈새시장을 또 다시 개척하게 되는 쾌거를 올리는 순간이었다.

“지상파 디지털·아날로그 혼신 신호발생기”는 최첨단 기술과 역발상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이 기술은 업계 최초로 기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방송의 방해 전파와 아날로그방송과를 동시에 발생시켜 실제로 혼신상태를 재현하는 장치로, 혼신하지 않는 최적의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했다. 한편 현재 중국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디지털 TV 표준 규격에 대응할 수 있는 신호발생기 개발에 착수한 상태이다.

(4) 향후 전망

방송분야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화두가 된지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 특히 최근에 에이덴의 제품이 휴대전화 사업자에게 납품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은 휴대전화 등 모바일을 대상으로 한 전파대역이 이미 정해져있으며, 2003년 말 이후 지상파 디지털 TV를 수신할 수 있는 휴대전화의 출시가 증가하고 있다.

에이덴은 이미 대부분의 휴대전화 사업자의 연구 개발용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메이커를 상대로 한 판매도 최근 증가추세에 있다. 휴대전화 등의 모바일 기기의 시장 확대와 더불어 신호발생기의 수요처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러한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원동력은 에이덴의 전체 직원의 90%가 엔지니어라는 점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물론 우수한 엔지니어를 중소기업에서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에이덴은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해 급여와 처우를 전기관련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안심하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놓고 있다.

<참고자료>

에이덴 홈페이지(<http://www.eiden-gp.co.jp>)

經濟産業省 中小企業庁編(2006), 『元気なモノ作り中小企業300社』.

日刊工業新聞特別取材班編(2003), 『この分野一番企業』, 日刊工業新聞社.